송추계곡 해설프로그램	해설자	000

프로그램명	**송추계곡복원에 이후 자연 생태이야기**
해설대상	**성인 20명**
코 스	**송추 자연 관찰로**
해설주제	**복원이후 달라진 송추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훼손된 자연 환경을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리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린다.**

구간별 테마	진행 시간	주요 내용 및 의미	준비물
1. 인사나누기 국립공원 및 송추소개	10분	• 숲 속 인사-해설가 소개 및 인사 • 북한산국립공원 소개 - 국립공원 소개 - 송추지역 명칭의 유래 및 소개 - 국립공원에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사진자료
2.야생화마당	10분	• 산수국 이야기 - 헛꽃의 아름다움이 주는 야생화 이야기	
3.곤충 숨결 마당	10분	• 곤충의 이해를 돕는 자연 놀이	곤충카드
4.억새 손짓 마당	10분	• 억새이야기 - 억새와 갈대차이 - 원두막에서 앉아 송추 폭포 감상하기	
5.단풍채색마당	10분	• 나무 이야기 • 고목이야기 - 고목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6.들꽃미소 마당	10분	• 송추 복원에 대한 이야기	
7.물소리 마당	15분	• 나뭇잎 카드 만들기 - 자기에게나, 소중한 사람에게 카드 쓰기 - 소감나누기	나뭇잎, 목공풀, 카드, 싸인펜
8.마무리	5분	•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	

(1) 인사나누기 및 국립공원 및 송추 소개

여러분~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연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직접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찾아오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이곳은 북한산국립공원이에요. 그럼 국립공원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해요.
또한 이곳 북한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1983년 15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외국국립공원들과 다르게 공원전체가 도심으로 둘러싸여 생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산이에요.
반면 이런 환경조건에도 도심지역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녹색허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이기도 하며. 수도권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은 북한산국립공원 중에 송추지구에요.
송추라는 이름은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추지구에는 산이 화강암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위에 많은 바위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송추지구에는 송추폭포, 원각폭포, 계곡이 있어 여름에 시원함을 더해주며, 송추지구의 멋을 돋보이게 합니다.
송추지구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오봉, 여성봉, 사패산은 많은 탐방객들이 기암 암석을 볼 수 있어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산에 꼭 한번 올라가보세요! 여기와는 다른 모습의 멋진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더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곡사이로 식당들이 즐비했던 시절을 있었지요. 오늘은 그랬던 그곳이 어떻게 복원돼 변했는지 알아보며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곳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무엇들이 있을까요?
모두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 국립공원에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돼요.
 둘째,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돼요.
 셋째, 새나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소리를 지르면 안돼요.
 여러분들~ 다 잘 지킬 수 있죠?
이동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분은 다녀 오세요~
자, 그럼 우리 자연관찰로를 따라 이동해 해볼까요?

2)야생화 마당

이곳은 국립공원에서 야생화를 심어 조성해 놓은 곳 이예요.
봄이면 할미꽃 앵초, 메발톱꽃등 많은 꽃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답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보는 이들 마다 다르겠지만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봉우리 일 수도 있고 활짝 핀 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싹을 내거나 꽃눈일 때 아름답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름이 오는 시기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이 꽃을 아시나요? 오~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산수국입니다. 천지에 있는 참으로 아름다움 산(山)소중한 물(水)을 담고 있는 동시에 사군자의 국(菊)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꽃이랍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면서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그만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산수국은 변화의 다름을 보여주는 꽃처럼 다가오는 꽃이라 좋아합니다.
산수국을 보면 첫 번째로 보랏빛인지 파란빛인지 기묘한 꽃 색깔에 반하게 되고,
두번째로 수많은 꽃들을 피우는 생명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들을 유인 하기위해 멋들어진 핀 헛꽃의 아름다움에게 반하게 되지요. 저는 특별히 이 이유에 의미를 담고 싶어요.
헛꽃은 곤충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요
막 피기 시작할 무렵에 보면 헛꽃이 먼저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곤충을 유인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다 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는지 보려고 숙였는지 아니면 세상풍파 다 겪고 나서 삶이란 그렇게 꼿꼿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고개를 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바람에 겨울이 와도 바짝 마른 헛꽃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산수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산수국은 지금처럼 아름답게 핀 모습도 좋지만 아까 말한 변화의 다름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여리기만 하던 이파리와 꽃잎들은 점점 억세져요.
여린 것은 여린 것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추위와 싸우며 억세진 잎과 꽃잎을 보면 손마디가 굵어진 세월의 풍파를 겪은 우리네 어머니 생각이 나곤 합니다.
피어나는 순간부터 늦가을까지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 피어났을 때는 주인공처럼 대우를 받지만 다른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그 빛이 바래지면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요.
헛꽃은 진짜가 아닌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주변에서의 삶이 없다면 산수국은 자잘한 꽃만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만큼 충분한 곤충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에요.
헛꽃이 있음으로 산수국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네 어머니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남편 자식이 먼저이고 자신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산과 들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에 대해 무심히 지나쳐 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시로 마무리 하고 싶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곤충마당으로 이동하실까요~

(3) 곤충마당

송추지역은 이 안내판이 있는 곳부터는 계곡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곳 숲과 물에는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네, 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어요. 꽃들을 찾아오는 나비, 벌부터 딱정벌레류 나무에 사는 애벌레부터 물속에 사는 버들치, 가재 등 눈에 잘 보이는 것들 뿐만아니라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 동물계 중에 70%가 곤충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 곤충들 사이에서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도 있고 도움을 주는 관계들까지 얽혀있는 있답니다.
또한 숲에는 곤충들을 먹이로 하는 새들이나 중간 포식자들과 먹이사슬로 인해 자연이 더욱 다양한 생물들로 인해 풍요로와 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 세 팀으로 나누어서 곤충완성하기 게임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대로 곤충을 만들어가는 가는 게임으로 제일 먼저 곤충을 완성하는 팀이 이기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있어요.~
우선 먼저 간단히 곤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더듬이가 있으며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쌍의 날개가 있구요 홑눈과 겹눈이 있어요. 다리는 세 쌍 이구요.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리가 네 쌍이고 머리가슴과 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미처럼 여왕개미와 숫개미만 날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먼저 게임방식을 얘기 하자면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오면 입이 있는 카드
2가 나오면 더듬이가 있는 카드
3이 나오면 머리 가슴 배가 있는 카드
4가 나오면 날개가 있는 카드
5가 나오면 눈이 있는 카드
6이 나오면 다리가 있는 카드로 먼저 곤충을 완성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산책하는 마음으로 억새마당까지 천천히 자유롭게 주변을 감상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4) 억새마당

다 모이셨나요?
힘드셨나요.~ 시원한 폭포 소리에 더위가 물러가는 것 같지요~
여기보이는 이것은 뭘까요? 갈대? 억새? 이것은 억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 중 '으악새 슬피우니~' 그 으악새가 억새 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슬피운다는 표현대로 억새는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내는 소리와 자연의 색깔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지요.
많은 분들이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갈대는 강 입구 또는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고 억새는 물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산이나 들에서 자라요.
하지만 물억새도 있어서 물가에 있는 것이 다 갈대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꽃을 보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에 비유하자면 갈대는 갈색으로 짧고 가는 머리카락이 뭉쳐 남 모양이고 억새는 흰색을 띄면서 굵고 긴 머리카락을 곱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잎맥에 하얀 선이 두드러지면 억새에요. 잎에 잔 톱니가 있어 손을 베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억새꽃을 본적이 있나요? 이 모습이 억새꽃이 핀 모습입니다.
억새꽃이 피면 가을이 온다고 하지요. 모든 식물은 꽃을 피울 때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만 억새는 가을에 열매가 익어 흰솜털을 날릴 때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젊음의 싱그러움이 좋기도 하지만 삶의 연륜으로 깊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여유로움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나요. 좋은 의미로 하는 말 같지는 않지요~ 웃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억새나 갈대처럼 풍파에도 꺽이지 않는 유연함과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을 비우며 자신을 가볍게 하여 멀리 씨앗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요즘처럼 풍요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 만큼은 비움과 자연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송추폭포도 감상하시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잠시 각자 시간을 갖고
5분 뒤에 이동하겠습니다.

(5) 단풍채색마당

이곳은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기에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몇가지 나무설명 후에)
이쪽에 보이시는 나무가 쌓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우리 국립공원에서 일부러 쌓아 놓은 것이랍니다.
이렇게 모아둔 나무에는 벌레들의 겨울을 나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면 애벌레도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산에 올라가다보면 죽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 들을 볼 수 있을거에요.
죽은 나무도 다 숲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답니다.
나무가 죽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버섯이고 다음에는 벌레들이 찾아오지요.
사람도 건강하면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듯이 나무도 건강한 나무에는 버섯과 곤충이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버섯과 벌레 다음에는 딱따구리가 찾아오는데 딱따구리는 나무를 두드려서 나오는 진동으로 나무속이 비어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무를 파서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딱따구리는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어지럽지 않게 긴 혀가 머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혀끝으로 벌레를 빼내어 먹는답니다.
그러다 나무는 부서지게 되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 주변식물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어 더욱 건강한 숲을 이루게 되지요.
이곳은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죠.~
이동하겠습니다.

(6) 송추 복원이야기
 보통 송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송추하면 유원지 아니야? 하고 되묻고는 하십니다. 유원지라 하면 오락·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이 능동적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옥외 여가 공간을 일컫는 말로 쉽게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장소정도가 되겠네요. 서울과 가까우며 물이 맑고 계곡이 아름다운 이곳 송추계곡은 1963년 서울 교외철도가 생기면서 인근에 있는 장흥, 일영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원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식당과 수영장, 방갈로, 낚시터, 놀이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점점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몸살을 앓던 곳이었죠.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에 의해 수질은 급속히 악화되

었고 그로인해 계곡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식당에서 손님 호객 목적으로 물을 가두어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인공구조물로 인해 물길이 막히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재역할을 하지 못해 1998년에는 집중호우로 물이 범람해 24명의 목숨을 비롯한 많은 인명과 상가 50여동이 휩슬려내려가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추계곡이 달라졌습니다.

계곡을 점령하고 있던 수많은 음식점들이 사라지면서 계곡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고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꿩등의 많은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계시는 이 사진들은 송추계곡 숲속에 설치된 동작감지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으로 많은 동물들이 이 숲과 계곡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추계곡 복원사업은 2001년 12월의 이주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9월 송추계곡 철거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장 14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400억원 이상의 금액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송추계곡에 있던 53가구 143동의 건물들은 송추계곡 하단의 집단 이주지구 4만5천 제곱미터의 공간으로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곡에 있던 식당들을 철거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하여 야생화 마당, 곤충숨결 마당, 억새손짓 마당, 단풍채색 마당, 들꽃미소 마당, 물소리 마당, 쉼터 마당등 각 테마별로 자연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송추자연학습원을 마련하여 탐방객들이 좀더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송추계곡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이야기를 알아 보았는데요 이처럼 한번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연을 옛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이득을 위한 자연의 파괴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연보전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7) 물소리 마당

지금 이시간은 주변에 마음에 드는 나뭇잎 한 장을 주워와 나만의 카드를 만드려고 합니다.

다 만드신 분은 펜으로 자신에게 쓰는 글을 써도 좋고, 오늘 느꼈던 점을 써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글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오늘 이 순간을 기억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8) 마무리

오늘 계곡을 따라오면서 송추계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훼손되었던 송추 계곡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지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고마움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잃고 나서야 안다면 그건 너무 늦지 않을 까요~

그럼 자연은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숲과 인간은 따로 따로 일까요? 숲과 인간은 같이하는 화합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간은 자연환경을 지배하거나 파괴하려 했습니다.

자연환경을 물질적 가치를 지니는 천연자원으로만 생각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 숲 속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안 좋은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과 노력이 필요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숲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숲이 살아나면 숲은 숲속 다양한 생물들이 숲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숲을 지켜주고 아껴주어야 이 멋진 자연 속에서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느끼신 많은 자연을 가슴에 담으셔서 자연을 지키는 일이 특정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뵙기를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